

PHOTO ESSAY

사진산책



제주도 김녕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이호준 Lee, Ho-Joon | 언론학박사·포토에세이스트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여섯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제주도는 어떤 의미일까? 예전에 기업인들과 제주도에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그때 참석자들에게 제주도에서 회의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돌아온 대답 속에서 제주도의 존재 의미가 명확히 드러났다. 대기업 임원들은 급한 업무가 발생하면 시간대 관계없이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즉각 복귀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고 했다. 사무실에서 벗어나 퇴근 후 시간만이라도 자유롭게 보내고 싶은데,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라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육지 사람들에게 도피처이자 자유의 공간이다. 이런저런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공항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쉽게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름다운 풍경, 풍성한 먹거리, 이국적인 올레길까지. 만날 수 있는 제주도는 짧은 시간 동안 큰 부담 없이 휴식과 재충전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장소다. 온화한 날씨 덕분에 한겨울 방문지로도 제격이다. 면적이 크지 않은 나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여행지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제주도는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